

특별기고

이제는 광주 세계수영대회다



박 대 한
국가대표 수영 선수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홍보대사

안녕하세요.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국가대표 수영 선수 박태환입니다.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이렇게 지면을 통해서 인사 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호주에서 올레 있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출전을 목표로 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4월에 치러지는 국가대표 선발전을 앞두고 매일 같이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개월 동안 평장에서 펼쳐진 올림픽은 우리 모두의 즐거움이었습니다. 평장에서 들려오는 반가운 소식들은 저에게도 고된 훈련을 이겨 내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평창은 국제스포츠 역사상 최초로 기록될 많은 역사를 썼습니다. 대한민국 첫

동계 올림픽이었고, 올림픽 최초의 남북 단일팀이 성사되었습니다.

또 스키투론을 비롯한 썰매 종목에서 대한민국 체육사에 길이 남을 성과를 거뒀습니다. 스포츠인의 한 사람으로서 스포츠 대한민국이 정말 자랑스롭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 한편에는 전 세계의 수영 선수들이 찾아오게 될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격정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국가대표 선수로서 좋은 성적을 내서 국민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인 만큼 다른 어떤 대회보다도 훌륭한 대회였다는 평가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올해는 평창 올림픽, 러시아 월드컵, 자카르타 아시안게임까지 세계의 이목을 끌 때가 스포츠 이벤트가 잇따라 개최됩니다. 평창 올림픽이 끝났으니, 대한민국의 차기 메가 이벤트는 2019년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될 것입니다.

지난해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선수권대회를 마친 이후부터 저는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사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해 기

아티아거즈 구장에서 팬 사인회와 시구를 위해 광주를 찾았습니다. 그때 기아챔피언스필드를 가득 메운 광주 시민들의 열기를 보면서 광주의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힘이 지난 2015년 유니버시아드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밑바탕이 되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3월은 무엇이든 시작하기에 참 좋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평창 올림픽의 성공은 2019년 광주로 이어져야 합니다. 대회의 슬로건인 ‘평화의 물결 속으로’처럼 평화 대회의 바통을 이어야 하고요. 컬링, 스키투론, 루지 등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동계 스포츠 종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의 열기를 다양한 수상 종목으로 이어야 하겠습니니다.

순위보다는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박수와 찬사를 보냈던 향상된 스포츠 관망 문화의 전통도 이어야 합니다. 평창 올림픽의 성공 주역이었던, 전국에서 모여든 1만5천여 자원봉사자들의 참여 열기 역시 이어져야 합니다.

선수들은 대회 기간 동안 잠시 머무르지만, 그 기간 동안 개최 도시가 주는 모든 것을 느끼고 갑니다.

지난해 광주에서 제가 받은 느낌은 사람들이 참 좋은 도시, 그리고 따뜻함이 느껴지는 도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기차 시간까지 좀 여유가 있어서 잠시 들른 ‘1913 송정역 시장’에서는 다른 시장과는 조금 다른 풋풋함과 즐거움을 잠시나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광주와 세계를 잇는 통로가 될 것이고, 그 지역은 광주 시민 여러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수영 선수들에게는 올림픽 이상의 위상으로 여겨집니다. 세계 최고의 기록을 보유한 선수들이 대회에 출전하기 때문에 프레올림픽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세계선수권대회 이후에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땀습니다.

평창이 그랬듯이 광주가 세계 수영 역사에 길이 남을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광주 시민들이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대회에서 저 역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영 선수로서,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홍보대사로서, 국민 여러분께 행복을 안겨 줄 수 있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더 힘차게 스트로크(stroke : 수영에서 팔로 물을 끌어당기는 동작)를 펼치겠습니다.

은편칼럼

최고의 리더십은?



옥 영 석
능협하나로유통 팀장

에서 하는 말일 수 있겠으나 직장 내에서의 “자네만 믿네”는 우리 사회의 리더십이 아직은 감성에 치우쳐있다는 방증인 것 같다.

조직 내의 서로 다른 자질과 성격, 행동양식을 가진 구성원들을 어떻게 하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대개 전통적인 유형의 관리자는 자신이 가진 지위와 권위에 의존하여 업무 지시를 내리고, 업적이 부진하면 위협을 가하여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카리스마형이 많다.

어떤 이는 조직과 가정을 위해 일해 달라고 감성에 호소하거나 너는 할 수 있다고 부추기는 타입이 있고,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여 일을 추진하게 하는 위임형, 무책임한 것 같지만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두는 방임형 관리자도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많이 있다. 이외에도 감성 관리에 주력하는 감성형, 구성원들을 주인처럼 섬

겨 동기를 유발케 하는 서번트 리더십도 한동안 각광받던 유형중 하나다.

그러나 리더십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부하 직원들의 성과를 최고로 높이는 리더십 유형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적합한 리더십유형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능력이 부족하고 하려고 하는 의지도 약한 부하 직원에게는 작업 일정을 수립해 주거나 직무를 정확히 규정해 주는 지시적인 리더십이 가장 효과가 크고, 스트레스나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부하 직원이나 수행하는 업무가 어려워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는 부하 직원에게는 용기와 자신감을 북돋아 주며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후원적 리더십이 가장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또한 능력이 있고 무엇이든 실천하려는 의지가 강한 부하에게는 되도록 간섭을 하

지 않고 결정 권한과 실행 책임을 위임하여 주는 위임형 리더십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리자는 스스로 가지고 있는 한가지 유형의 리더십만을 고집한다고 한다. 지시적인 리더십을 가진 관리자는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부하들에게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통제하려 들며, 후원적인 리더십을 가진 관리자는 언제나 친절하게 대하고 인간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다.

동일한 리더십 유형이 모든 상황에서 똑같이 효과적이지는 못한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리더는 자신의 스타일대로 모든 부하 직원들에게 행동할 것이 아니라, 부하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어려워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지,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처치를 제대로 파악하여 그 상황에 맞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기 고

광주만의 행복 스토리가 담긴 물류 정책



송 권 준
광주시 교통정책과장

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당시 해당 장교의 임무는 군대를 야영시키고 군인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며, 말이나 다른 짐승들의 먹이를 조달하는 일을 담당했다고 한다. 물류가 국가나 지역 경제 발전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는 로마의 사례에서 잘 알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말 중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17세기 프랑스 작가 라퐁텐의 ‘우화’에 맨 처음 나온 말로 로마가 28만km에 이르는 도로를 건설하여 대제국을 이룩할 수 있었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훗날 역사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로마가 지중해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포장 두께 1m 이상이 되는 견고한 도로를 따라 물자와 군수품을 신속하게 이동한데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후에도 이 도로를 통해 다양한 문명과 물류가 전파되면서 로마는 1400여년 동안이나 국가를 지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로마의 사례 이외에도 고대와 중세, 근대를 거쳐 물류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부각되어 왔다. 특히 현대에 들어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각국의 다양성을 보 호해 주던 각종 장벽이 무너지고 모든 나라가 하나의 시장이 되면서 물류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물류 체계의 효율화와 물류 산업

의 경쟁력 강화, 물류의 선진화·국제화를 목적으로 하는 ‘물류 정책 기본법’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이 법은 국가의 물류 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물류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도 최근 ‘4차 산업혁명·인공지능(IoT)·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에 대비한 물류 선진화 및 지역 산업과 연계한 물류 체계 기반 구축’을 비전으로 하는 중장기 ‘제3차 광주광역시 물류 기본계획(2018~2027)’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계획에는 지역의 물류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49개의 다양한 사업이 계획되었지만 무엇보다도 물류 관련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함께 시민 편의와 생활에 필요한 생활 지원형 물류사업 등이 대거 포함되었다.

먼저, 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 종사자의 휴식과 정보 공유, 건강과 금융 상담까지 가능한 ‘달빛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 설치와 화물 운전원들의 사고 예방을 위한 ‘화물자동차 차로 이탈 경고 장치 장착 지원 사업’ 등 화물·물류 관련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이 반영되었다. 또한, 화물복지재단과 연계하여 화물 운전자와 가족들을 위한 학업, 건강 지원, 여가와 교통안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시민 체감형 사업으로 중증 장애인 가정에 포장 이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과 일반 가정에서 포장 이사 피해 발생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소송, 절차 등의 컨설팅을 지원하는 ‘이사 서비스 피해 구제 지원’ 사업과 함께 이사업체의 관리·감독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택배 이용이 급증하면서 택배 분실, 택배 사칭 범죄 등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1인 가구 많이 거주하는 주택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안심 택배함’을 설치하는 사업도 진행된다. 노인 일자리 창출과 택배 기사의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는 대책으로 ‘실버 택배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물류 기업의 전문 인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구직자들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물류 전문 채용 박람회’도 개최하는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다수 반영되었다. 이러한 계획은 올해부터 시작되어 2027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광주시 물류 산업의 10년 청사진이 마련되고 있다. 옛말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했다. 새로 발표된 물류 계획이 섬세한 후속 조치로 시민 생활의 편의를 높이고 물류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까지 대폭 늘어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社 說

헌법 전문에 5·18 담은 정부 개헌안 반갑지만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은 청와대 개헌안이 공개되자 민주성 지인 광주에서는 한결같이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5·18 유가족과 부상자 및 구속 부상자 등으로 구성된 5월 3단체도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을 반겼다. 정춘식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은 “5·18 헌법 전문 수록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광주민주항쟁을 통해 바로 설 수 있었다는 사실을 공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희승 5·18구속부상자회 회장이 “대한민국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업적”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어제 공개한 개헌안은 한국 사회의 실질적 민주화를 이끈 ‘이정표적 사건’을 명기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헌법이 지향하는 정신과 가치를 담은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 운동을 물론 부마항쟁과 6·10 민주항쟁도 수록한 것이다. 이는 한국 현대사에 있어 부당한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적 저항

권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이날 공개된 개헌안의 또 다른 특징은 기본권 강화다.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것이 주목되며 군사독재시대 사용자의 관점에서 사용됐던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꾼 것도 의미 있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당초 21일쯤 개헌안 발의를 검토했으나 야당과 협상할 시간을 달라는 여당 요청을 받아들여 26일로 연기했다고 한다. 26일까지는 발의가 이뤄져야 6월 지방선거 및 개헌 국민투표 실시가 가능하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정부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그럼에도 정부가 독자 개헌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라는 국회에 대한 압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청와대는 국회가 내달 28일까지 개헌안을 발의하면 대통령 직권을 철회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정략적 이해를 벗어나 하루빨리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 기관 감정노동자 보호 대책 절실하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고객에게 정해진 감정 표현을 드러내야 하는 노동 유형을 ‘감정노동’이라 한다. 주로 어떤 상황에서도 친절함을 잃지 않아야 하는 서비스직 종사자들이 해당하며, 공공 기관의 콜센터 상담원이나 민원실 근무자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광주시와 산하 공공 기관의 민원 업무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 상당수가 감정노동으로 인해 재해나 질병을 경험했고 신체적인 폭력까지 당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전남연구원 김기근 책임연구위원이 광주시 분청과 직속기관, 출차·출연기관의 민원 업무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 277명을 대상으로 ‘공공 부문 감정노동자 인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 33.3%가 “최근 1년 사이에 재해나 질병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또 네 명 중 한 명꼴로 민원인에게 감정을 숨기고 응대한 뒤 우울증을 경험했거나 업무 중 민원인에게 신체적인 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욕적

비난이나 욕설 등을 들은 경우도 83.4%에 달했다. 이처럼 피해를 당하면서도 민원인의 황포에 대해 감정노동자들의 40.5%가 “참고 받아들인다”, 35.4%는 “감정을 억누르고 친절하게 대한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감정노동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 우울증을 동반한 심리적·정서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진단한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면서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해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다. 국회 환노위가 최근 감정노동자들의 인권과 건강권 보호 등 사업자의 예방 조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감정노동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당 분야 종사자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시민 의식 함양이 절실하다. 아울러 피해 구제와 종합적인 정책 지원을 수행할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설치도 검토해 볼 만하다.

無 等 鼓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창 힘이 넘치는 시기에 있는 사람을 ‘청년’(靑年)이라고 한다. 그렇게 힘이 넘쳐야 할,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청년 실업률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아르바이트와 비정규직으로 또는 ‘취준생’(취업준비생)으로 속절없이 시간을 보내는 청년이 많아 안타깝기만 하다. 더욱 서글픈 사실은 갈수록 청년 빈곤층이 늘어만 가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의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자료를 보면 지난해 30세 미만 저소득 청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78만원 1000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온다. 30세 미만 저소득 청년 가구의 월 소득은 2013년 이래 계속 낮아지고 있다. 2013년 90만8000원에서 2014년 81만 원, 2015년 80만6000원으로 떨어지더니 지난해는 사상 처음 80만 원에 못 미쳤다. 고용 불안에 시달리며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2007년 당시 한국의 20대를 지칭하는 ‘88만 원 세대’는 옛말이 되고 ‘77만 원 세대’ 출현이 머지않았다는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77만 원 세대’

이 때문에 한창나이에 아르바이트 현

장에서 커피면이나 삼각김밥 혹은 햄버거 등으로 끼니를 때우는 청년들이 허다하다. 이런 상황인데도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0만 명 선으로 떨어졌다. 8년여 만에 기록한 최저치다.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운 것이 일자리였지만, 일자리위원회는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청년 체감실업률은 22%를 웃돌고 있다. 그러면서 시간은 자꾸 흐르고 있다.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은 “낙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심이 죽는다”고 했다.

최근 베스트셀러로 꼽히는 ‘앞으로 10년, 대한민국 골든타임’의 저자인 인문학자 김경진 씨도 “정치권 경제적 사회권 모든 것의 초점은 미래 가치에 모아져야 한다. 그 가치의 핵심은 바로 청년들이 누려야 할 미래의 삶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77만 원 세대’ 현실화를 막을 수 있을지 아직 불확실하다. 취업 정책과 빈곤에서 안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희망을 꺾어서 안 된다.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최권원 정치부부장 cki@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회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